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흔히 회사나 조직을 자랑할 때 우리 회사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어 맨파워(manpower)가 뛰어나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맨파워란 특정한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전문 인력이 많아서 맡은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필자도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바이킹들의 역사를 다룬 시리즈물을 시청 중이다. 바이킹의 한 지도자가 목표를 가지고 뛰어난 전술이나 배를 만드는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배를 만드는 기술과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이다. 즉 전문가 맨파워의 중요성이다. 중세에도 전문가는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전문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란 무슨 일에 굉장히 정통하고 올바른 판단

전문가란

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추었다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정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맡아 왔다. 전문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한 지식 보유 수준을 넘어서 자기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가는 책임감과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자신은 그저 의뢰받은 일을 할 뿐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는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전문가가 아닌 단순 기술자일 뿐이다. 책임감과 윤리성을 망각한 전문가는 어떤 이들보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자신만이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학술적 원칙에 자신의 사상을 주입해 여러 매체나 위원회를 통해 주장하면 이를 접한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다. 현대사회는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사회적 의사결정도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회의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이다. 한 사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데 거기서 더 나아

가, 현대사회는 과학화·기술화·전문화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복잡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서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예리한 눈과 통찰로 사건을 짚어 준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누군가의 도구가 될 때 정보는 왜곡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본인의 정체성도 문제지만 전문가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나 전문 능력을 힘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그리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가 완벽한 정이나 도덕으로 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의 이론은 지켜야 한다. 현대판 지옥위마(指鹿爲馬)를 경계하는 것이다. 그게 전문가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전문가는 자신이 조사하고 연구한 것에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반면, 사기꾼은 자신이 연구한 것이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모두 사실이 것처럼 말하는 차이점이 있다. 뇌과학 분야의 전문 리포터인 라피 레츠타는 "전문가는 자신이 아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하고 사기꾼들은 반대로 모든 것을 알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정된 내용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결정지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전문성까지도 살펴 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그리운 건 겨울이 춥고 깊어서일 게다. 마을 앞 냇가에서 더 이상 썰매를 탈 수 없이 붓물이 불어 오르면 봄이 바짝 다가왔음을 알았다. 우리 마을별로 줄을 지어 보리를 밟았다. 보리를 힘차게 밟을 때마다 고무신 발바닥이 간지러웠고, 보리가 짓밟개졌을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나간 뿌연 흙먼지 너머로 파릇파릇 봄이 오고 있었다. 더 자라서는 음지의 얼음이 깨질 즈음, 두엄 냄새와 함께 불이 왔다. 거북하면서 결코 싫지 않은 냄새, 꿈꿨던 두엄이 풀리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 냄새 같은 거름 냄새를 따라 살랑살랑 춘풍과 함께 왔다. 사춘기에 봄은 엉뚱한 곳에서 왔다. 어느 봄과 달리 밖에서 오지 않고, 놀랍게도 내 가슴 안에 있었다. 가장 뜨겁고 가장 길었던 봄이었다. 봄은 새싹처럼 쑥쑥 터숨을 울렸고, 연분홍 여드름을 보냈처럼 점점이 이마 위로 피워 냈다. 사랑해서 아픈 봄이었다. 가장 힘든 봄도 있었다. 그해 5월, 그해 봄은 유난히 길었고 지루했고 눈물겨웠다.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섬진강의 봄

않아도 온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도,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겠다는 시구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해는 꽃이 피지 않은 해였다. 교실에도 강의실에도 교실에도 없었고 너릿재나 동동고개에도 봄은 오지 않았다. 스무살 무렵이었다. 그 뒤 또 20년이 흐르고 또다시 세 번째 20년이 흘렀다. 예전 봄이 가끔 오는 손님 같은 봄이었다면, 지금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 임 같은 봄이 되었다. 내 머리카락도 매화를 닮아 이제는 하얗게 백발로 만발한 지금, 한 갑자 봄, 흰 머리카락은 봄의 DNA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를 유년 시절 사냥개로 이끈다. 그러면 서둘러 임이 오는 길로 마중을 나선다. 그녀는 꼭 저 아래 광양에서부터 은어의 푸른 등을 타고 온다. 차가운 지리산의 언 강물을 꼬리를 부수며 힘차게 거슬러 오면 내 온몸도 근질근질해진다. 봄은 섬진강으로 올라온다. 바다도 뱃길이 있고, 비행기도 하늘길이 있듯 춘풍의 길이 있다면 그건 섬진강이다. 섬진강 운술 위로 봄이 제일 먼저 온다. 아니 가장 먼저 온다. 봄이 되면 섬진강 강물은 와글와글 수많은 두꺼비들의 울음소리를 낸다.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그 우렁우렁한 봄 두꺼비 울음소리는 겨울을 밀어내며 봄이 오는 소리다. 봄이 온다고 모두 다 봄이 아니다. 아버지의 바짓가랑이 같은 섬진강으로 오는 봄이 진짜 봄이다. 간혹 겨레나 부산에서 화신이 먼저 도착했다고들 아우성이나 그곳은 애당초 물러나지 않은 봄, 뒷새처럼 웅크린 목

은 봄이다. 남평 광양에서 섬진강을 따라 올라 온 봄이 야말로 진짜 새봄이다. 저 멀리 시베리아까지 세 계절은 넉넉히 물러났다가 때가 되면 철새처럼 와야 봄이다. 광양이라는 이름처럼 봄 햇살로 와서 다담에서 매화꽃 강물 위로 몇 송이 흘러보내고 지리산과 보성강 강물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문척에서 겨우내 잠든 참깨를 깨우며 달포 가랑 머물고, 고밭에서 뱃놀이 좀 하다가 정계에서 또 사나를 쉬었다가 그렇게 해할 좀 하면서 계으름과 거드름 좀 피우며 느릿느릿 왔다가 광주를 지나 순창 임실부터 서울까지 당차게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올라오면서 매화를 피우고 진달래로 산전을 수놓으면서 열었던 이들의 마음을 녹이며 올라오는 섬진강 봄이 진짜 봄이다. 어린아이들 머리에 꽃을 꽂으로 오고, 시골 노인네들도 삼삼오오 모여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고 흥얼거리도록 온다. 봄은 땅을 뚫고 오고, 물속으로 오고 바람을 타고 온다. 어느 문턱이고 어느 집앞마당에 파란 호박이나 오이 새순으로 오고, 시골 노인네의 해맑게 웃는 주름 사이로, 빠진 이 틈새로 오고, 부지런히 퇴비를 뿌리는 농민들의 소쿠리에서 온다. 노란 병아리의 뾰족한 울음소리로 오고, 빨랫줄에 널린 이불 사이로도 온다. 섬진강으로 오는 봄이야말로 진짜 봄이고, 마법 같은 봄이다. 그러나 어찌 바쁘다고 나를 바구니 챙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고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최근 대선 토론회에서 '성인지 예산을 줄여 국방 예산에 사용하겠다'는 모 후보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당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책 이해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사업)이 성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의 성별 수혜 분석과 성과 목표 설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다. 사업 집행 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역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26조 등)에 근거하며 국가 회계법(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법(3조, 36조)과 지방회계법(18조)에 근거해 지난 10년간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작성해 왔다.

지방정부는 당해연도 신규 사업,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 그리고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 지원 사업, 안전 사업 등에 관한 대상 과제를 선정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대상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남녀 수혜자에게 어떻게 예산이 분배되어 사용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 제반 분야에 있어서 성별 평등적 수혜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 취업 지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창업기업 지원 용자, 생활체육 활성화, 위기 극복 정책금융 지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과 같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사업에 관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은 정책 대상의 이해와 요구에 맞도록 성별 수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성인지 정책도 구인 성별 영향 평가나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별 분리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불균등이 심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여 국민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인지 예산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가운데 예산 사용의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하여 양성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이다. 실제 성인지 예산의 직접 목적 사업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에 관한 사업이나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가족센터 등에 관한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성인지 예산이 따로 있어 이를 국방부 대공 분야로 돌리겠다는 주장은 정부 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여성 대상 폭력이 가부장제적 관행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전담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힘겹게 쌓아 올린 성평등을 향한 사회적 노력을 백지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지금은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에 대항하여 남녀의 사회경제적 참여 촉진, 민주적이며 평등한 가족 생활, 건강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해 왔던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다 현실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성평등 정책에 관한 어떠한 의지도, 의식도, 지식도 없는 후보자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다.

社說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본투표로 이어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오픈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따른 번거로운 방역 절차도 마다하지 않고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국민들의 성숙한 주권 의식 덕분이다.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14년 사전 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전까지는 2020년 총선 당시 기록한 26.69%가 최고였고, 2017년 대선 때는 26.0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이 51.4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북(48.63%), 광주(48.27%) 순이었다. 이어 세종(44.11%), 경북(4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선거 사무원들이 기표를 마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백이나 종이상자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항의를 받은 것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투표소별 투표함을 한 개'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얽매어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다가 수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사전 투표의 혼선이 부정 선거나 불법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따른 역풍'을,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열기'를 각각 배경으로 꼽았다. 이제 관심은 모래 본투표에서도 높은 투표 참여 열기가 이어질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선관위와 방역 당국은 본투표에서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 3000%' 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 엄단해야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지속되면서 바람에 불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증가하자 이들을 노린 불법 대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허무허무를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제도권 은행을 전전하다 결국에는 사채나 불법 대출 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어떻게든 폐업만을 면하려는 자영업자들은 은행 용자로 돌려막기를 하다 신용도가 떨어져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 발을 디디고, 이마저 해결되지 않아 사채를 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보이소 피싱도 판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급전 수수료를 주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만 가로채는 범죄도 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만 원을 빌려주고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갖은 명목을 적용해 30배 이상을 뜯어낸 고리대금업자 네 명이 광주지법에서 징역

형(징형유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 원을 상환하고, 돈 갚을 날 12시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세 시간마다 10만 원의 추가 이자 발생'을 조건으로 내걸고 다급한 서민들에게 급전을 빌려줬다. 특히 채무자들보다 15명 인력의 친인척 및 지인 연락처·연계할 경우 지인들을 협박해 폭리를 적용한 돈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연체 이자율은 무려 연 3100~3400%에 달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중요하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사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은 사기이거나 불법 조직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법 당국도 경제력 약자를 파탄으로 모는 불법 대출과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는 세계의 고전으로 꼽힌다. 1915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로맹 롤랑은 "우리 시대 가장 방대한 서사시이자 현대의 '일리아스'"라고 평했다. 톨스토이는 객관적 자료와 작가적 통찰로 냉혹한 전쟁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삶과 운명, 죽음을 역동적으로 그렸다. 소설은 나폴레옹 침략에 맞선 1805년 전쟁과 1812년 전쟁 등이 주요 소재다. 파죽지세였던 나폴레옹 군대는 모스크바 진입을 목전에 두고 보로디노 전투에서 많은 것을 잃는다. 이들은 가깝스로 모스크바에 임성 하지만 혹한과 식량난, 화재라는 위험에 직면한다. 프랑수아는 별수 없이 퇴각하고 나폴레옹은 섬에 유배된다. 알렉산드르 1세 등 실존 인물을 비롯해 600여 명이 펼치는 대서사시는 전쟁의 가혹함 외에도 자만과 오만은 패배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전쟁이 도착하면 악마는 지옥을 낚는 다"는 말이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전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외신에 따르면 침공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00명이 넘었다. 특히 국제법으로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인 '진공폭탄'이 사용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 총회에서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혹여 러시아는 냉전시대로 회귀해 소련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변 국가를 무력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도회 흐르는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자부심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소설 속 고난을 극복하는 민중의 열망과 사랑은 러시아의 힘이었다. 그 민중의 의지와 생명력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톨스토이는 "영웅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해서도 안 되며, 오직 인간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았던가.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전쟁과 평화'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